



# 아이디어 창출 및 발명의 발상기법

## 거리의 아이디어도 잡아라

아이디어를 짜내야 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 사람들은 의자에 깊숙히 앉아 골똘히 생각만 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고 흔히들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아이디어 착상법의 한 부분만을 본 것이다. 실제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걸어야 한다. 어쩌면 머리 보다 발이 하는 일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

다시 말하면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해선 먼저 자료수집이라는 중대한 과정을 꼭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아이스바를 선전하기 위해 참신한 선전문구를 생각한다고 해보자.

그 아이스바를 먹어보지도 않고 책상 앞에 앉아 있거나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높은 선전효과를 올리기 위해선 우선 소비자의 취향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욕구를 조사하고, 종전에 있었던 선전문구들을 재점검하기도 해야한다. 이르기 위해서는 직접 뛰어다니며 조사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이러한 조사 작업이 끝난 후에 비로소 새로운 창작작업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아이스바의 선전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다. 모든 것에 적용되는 법칙인 것이다.

모아둔 자료들을 재정리하고,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 언뜻 보면 오래되고 퀘퀘묵은 소재로 둔갑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자료들을 모으고 기억 속의 자료들을 꺼내어 다시 뒤아보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진주들이 눈에 띌 것이다.

세상은 자꾸 변하고 또 변한다. 현재에 만족하고 주저앉는 자는 결국 도태되고 만다. 직접 발로 뛰며 새로운 것을 느끼고 동화하자. 그러면 인생에서 승리한 당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거리에는 주인을 기다리는 아이디어들이 지천으로 깔려있다.



## 발명은 지능과 경험이 만든다

발명은 지능과 형험이 만들고, 지능과 경험은 훈련이 만든다고 한다. 단지 의욕만 지닌 사람은 발명에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간단한 발명이라 할지라도 많은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물리나 화학의 기본 상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적용하고 응용하는 힘까지 있어야 한다. 이밖에도 기계나 전기 등 공학상의 지식도 필요하고, 발명 아이디어를 실제 물품으로 만들 수 있는 창작력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특히 창작력이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많이 부족한 편이다. 이 원인은 열악한 교육 환경에서나 우리의 인식부족에서도 찾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아이를 가르치는 부모의 탓이 큰 것 같다.

아이들은 장난감을 어느 정도 갖고 놀고나면 대부분 이를 분해하려 하는 습성을 가진다. 이는 본능에 가까운 행위인데 이런 행동을 통해 장난감의 원리나 구조 등을 알게 모르게 익히게 된다. 즉 하나의 중요한 교육과정인 것이다.

그런데 이쉽게도 우리의 부모는 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 그래서 장난감을 뜯어내는 아이를 보면 마꾸 꾸짖고 만다.

아이에게서 장난감을 빼앗고, 큰 소리로 화를



내고, 심지어는 때리기도 한다. 결국 아이에게서 하나의 교육과정을 빼앗아버리는 셈이 된다.

이에 반해 선진국의 부모들은 장난감 분해에 오히려 적극적이다. 아이와 같이 장난감을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는 과정까지 아이가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바로 이 때문에 선진국에 비해 우리가 기계에 대한 지식이 떨어지는 것이다.

언필칭, 지능과 경험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훈련의 결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기계에 대한 관심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에 대한 기회를 많이 마련해 준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발명가가 탄생될 수 있을 것이다. <왕연중 기> **발특9705**

### 대한변리사회 창립 50주년기념 현상공모 당선표어

최우수상	이 성 우	발명가는 기술개발	변리사는 기술보호
우수상	이 근 중	세계화의 첫걸음은	세계속의 우리상표
	오 세 란	무역전쟁	기술전쟁 발명으로 극복하자